

국외출장결과보고서

1. 출장의 개요

- 목적: '2014 Globe Modeling' 워크숍 참석
- 출장자: 남상호 (사회정책연구실)
- 출장지: 애나폴리스,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
- 기간: 2012년 2014년 7월 25일 ~ 2014년 8월 3일
- 주요 면담자: Professor Karen Thierfelder (US Naval Academy), Professor Scott McDonald (영국 Oxford Brookes University), Dr. Terry Walmsley (Purdue University)

2. 주요활동 사항

-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주관하는 "Globe Modelling Workshop"에 참석하고 돌아왔음
 - 이번 Workshop은 미국 해군사관학교 교수인 Karen Thierfelder와 영국 Oxford Brookes University 교수인 Scott McDonald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. "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의 구축과 적용"이 주요 의제가 됨
 - 이 Workshop은 매년 1회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고 있으며, 다양한 CGE 모델링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음.
 -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과제인 "고용친화적 재정지출 연구"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, 거시경제 변수와 노동 및 재정지출 관련 변수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을 습득하였음
- 미국 해군사관학교의 Professor Karen Thierfelder 와 영국 Oxford Brookes University 교수인 Scott McDonald, 그리고 Purdue University의 Terry Walmsley와의 수차례 회의를 가졌으며, 우리의 연구에 활용가능한 핵심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음

3. 주요 학습내용

□ 세부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음

2014/7/26(토)	
09:00-12:30	Introduction to Social Accounting Matrix
13:30-15:30	A SAM Approach to Modeling
16:00-18:30	Lab: GAMS, GAMS-IDE, GDX
27일(일)	
09:00-12:30	Price and Accounting Identities
13:30-15:30	Tax Instruments and Revenues
16:00-18:30	Market clearing and macroeconomic Closures in a CGE
28일(월)	
09:00-12:30	Factor Market Clearing in a Simple CGE Model
13:30-15:30	Introduction to the STAGE Database
16:00-18:30	Running a Policy Experiment in STAGE
29일(화)	
09:00-12:30	Taxes and Efficiency in the STAGE Model
13:30-15:30	Market Clearing and Macroeconomic Closures
16:00-18:30	Afternoon off
30일(수)	
09:00-12:30	Interpreting Model Results
13:30-15:30	Replication of Application
16:00-18:30	Extensions to the applications
31일(목)	
09:00-12:30	Extensions and Analyses of the Applications
13:30-15:30	Extensions and Analyses of the Applications
16:00-18:30	Complete Presentations
1일(금)	
09:00-12:30	Group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
15:30-17:30	Questions/Answers (by arrangement)

□ 현재 각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CGE모형에 있어서 여러가지 정책효과를 어떻게 명시적으로 고려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음

- 주요 분석기법은 연산가능 일반균형 (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) 접근법이며, 영국에서 개발된 CGE 모형에서는 국제무역을 중요시하는 구조이며, 정책효과 분석에 역점을 두고 있었음
- 참석자의 대부분은 미국 무역위원회 (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) 소속이었으며, 일부 참가자들만이 학계 또는 연구소

소속이었음

- 이들 참가자들은 이미 상당부분 CGE modeling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으며, software도 상당히 익숙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경험을 갖추고 있었음
- 본 워크샵을 통하여 CGE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음. 그 중에서도 특히 국제교역에 역점을 둔 CGE 모형을 이용하여 model calibration이나 policy simulation의 handling 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음
- 그렇지만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모형의 동태화 작업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정책효과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은 다루지 못하였음

□ 향후의 협력관계 모색

- 향후의 학술적 교류를 위해 세 명의 교수님들과는 계속하여 연락하기로 함 (이들은 개인적인 연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주셨음)
-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한국에서 모델링 워크샵을 개최한다든지, 프로젝트 수행 시 공동 파트너로 참여한다든지 등의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

4. 기타 사항

- “CGE 모형을 이용한 국제무역의 계량 분석”이라는 주제로 7일간 강도 높은 교육과 컴퓨터 실습을 병행하는 workshop이었으며, 지금까지 참석한 유사한 교육 중에서 가장 강도 높은 workshop이었음
- 따라서 이 workshop에 참석하기 전에 상당한 사전준비가 필수적이며, 주로 reading material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computer software를 숙지하고 참석하여야 할 것임
- 미리 배포한 지침에 따르면 최소한 약 40시간의 사전 학습 및

실습경험이 필요하다고 명기되어 있음

- 참석자 중 대부분은 담당업무가 Modeling이었음. 그 중에서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모델링을 담당하는 신규 채용자들이 참석자의 상당수를 차지하였음 (직장에서 2시간 거리라는 지리적인 이점도 있었음)

- 실무에 적용가능한 CGE Modeling 작업은 장기간에 걸친 교육과 실습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우리도 지속적으로 workshop에 참석하고 또 외국 전문가와 교류하는 것이 필요함

- CGE Modeling은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높은 분야이기는 하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(increasing returns to scale)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분야임
- 세계 각국에서는 독자적인 연구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는데,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실감하였음
- 심지어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대부분 국가에서조차도 CGE Model을 이용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있었음
-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또는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도 연구역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,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

-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및 연구소에서 다양한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할 때 CGE 모형을 이용하여 필요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.

- 또 관련지식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연구소나 관련 학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됨